

에니어그램 집단상담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이정섭¹ · 윤정아² · 도경진¹

¹한양대학교 간호학과, ²중원대학교 간호학과

Effectiveness of Enneagram Group Counseling for Self-identification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Lee, Jeong Seop¹ · Yoon, Jeong Ah² · Do, Keong Jin¹

¹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²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Goe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identification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ree groups, categorized by how the students solve their conflicts, were selected to identify changes from the program. **Method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and pre posttest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n=30) or control group (n=33).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38 hours through eight sessions covering four different topic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and Wilcoxon signed rank test. **Results:** Total self-identity score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for depression scores. The Assertive and Compliant groups demonstrated significant change in self-identification while the Withdrawn groups did not reveal any change. **Conclus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is very effective in establishing positive self-identification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face developmental crisis and stressful situations.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program would be useful to enhance the students' confidence through a deeper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themselves.

Key words: Enneagram, Group counseling, Nursing college student, Self-identity, Depress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생의 목표를 세우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회인으로서 기반을 갖추어야 하는 발달 과업을 갖고 있다(Park & Jang, 2010). 그러나

새로운 학업 과정의 적응, 대인관계 형성, 취업준비 등에 접하게 되면서 진정한 자기발견과 자아정체감 확립은 등한시되고 있다(Kim, 2008). 이 시기에 올바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게 되고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울을 경험할 수도 있다(Park, 2007).

특히, 간호 대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도한 시험과 과제,

주요어: 에니어그램, 집단상담, 간호 대학생, 자아정체감, 우울

* 본 연구는 2011년 한양대학교 의학연구 지원센터 임상 연구 협력연구비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111666).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Hanyang University Medical Research Support Center Clinical Research Collaboration fund in 2011(No. 20111666).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n, Jeong-Ah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85 Munmu-ro, Goesan-eup, Goesan 367-700, Korea

Tel: +82-43-830-8854 Fax: +82-43-830-8679 E-mail: yja9476@jwu.ac.kr

투고일: 2013년 2월 8일 심사외일: 2013년 3월 5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13일

임상 실습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환자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의 결핍 등 간호학과가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Timmins, Corroon, Byrne, & Mooney, 2011). 2개 간호 전문대학 389명을 대상으로 한 Yang (200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불안, 대인예민성, 신체화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개 대학 76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이용하여 측정된 우울 점수가 경한 우울상태인 21.5점을 나타내고 있었다(Kim & Kim, 2006).

Yang (1999)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우울 간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Lee와 Kim (2007)은 자아정체감과 절망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이 두 변인이 우울변량의 약 39%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우울 및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는 자아 정체감이 자살사고와 우울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어, 자아 정체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 통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해 우울과 자살 사고와 같은 내재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Park, 2007).

따라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간호 대학생에 있어 자신을 이해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내면의 갈등과 외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깊은 자기 통찰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을 전체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에니어그램이다(Wright & Sayre-Adams, 2007). 유아기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유형에 따라 성격이 형성되며, 스트레스 대처 유형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에니어그램은 유형별 자기이해를 도움으로서 자신의 삶을 수용하게 하여, 자아 성장을 도울 수 있다(Riso & Hudson, 1999). 에니어그램 이론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9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힘의 중심이나 갈등 해결 방법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형(8번, 9번, 1번), 가슴형(2번, 3번, 4번), 사고형(5번, 6번, 7번)의 3가지 그룹 분류는 힘의 중심에 따른 성격의 고착이나 불균형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Riso & Hudson). 또한, Horney (1945)는 인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만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안전감이 만족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불안이 생기는데 이러한 불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을 세 가지 신경증적 경향성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인간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사회적 방식에 따른 분류로, 세 개의 그룹을 각각 공격형(사람들

에게 대항하는 형), 순응형(사람들에게 향하는 형), 위축형(사람들로부터 물러나는 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들도 이러한 세 가지 경향성을 모두 갖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현하나, 어느 하나의 경향에 집착하게 되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부정하고 비현실적인 자기상을 추구하게 된다(Horney). Riso와 Hudson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 중 공격형에는 3, 7, 8번 유형이, 순응형에는 1, 2, 6번 유형이, 위축형에는 4, 5, 9번 유형이 속한다고 보았다. 공격형에 해당하는 3번 유형은 효과적인 수행을 우선시하고, 7번 유형은 활동과 기대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며, 8번 유형은 행동의 결과를 중요시한다. 순응형인 1번 유형은 초자아적 양식에 따라 행동하고, 2번 유형은 긍정적인 감정만을 부각시키며, 6번 유형은 생각에 대해 안심과 재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위축형에 속하는 4번 유형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5번 유형은 생각에 끊임없이 몰두되어 있으며, 9번 유형은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Riso & Hudson). 따라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세 가지 유형별 특성을 인식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인간은 자기이해와 자신의 삶에 대한 수용 정도,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갈등, 외적 상황에서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등에 의해 건강-불건강의 연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 Riso와 Hudson (1996)은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별로 불건강한 수준으로 진행될 때 DSM-IV의 정신질환 중 우울성, 회피성, 의존성, 조울성 인격장애 등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즉, 인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수용 및 대처를 못 할 경우 불건강 수준이 되므로, 개인 내면의 정신역동을 이해하고 개인의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건강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Kim, 2008).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평면적인 효과를 검증할(Lee & Kim, 2007; Lee, 2007; Lee & Kim, 2005)뿐 아니라, 프로필 쓰기를 통해 자신의 성격의 고착이나 불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내면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 지시등 선택 및 간호인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로드맵 작성을 통해 그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지하였다. 결론적으로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을 통해 자아정체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갈등해결 방식에 따른 세 가지 그룹별로 자아정체감과 우울 정도를 파악하여 정서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자기내면의 갈등 해결방식이 자아정체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군에 있어 Horney (1945)가 제시한 갈등해결 방식에 따른 세 가지 그룹 별로 자아정체감과 우울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둘째,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이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실험군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방식에 따른 세 가지 그룹별로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파악한다.

넷째, 실험군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방식에 따른 세 가지 그룹별로 우울의 변화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H 대학교 간호학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상자 모집 공고가 3월 초인 관계로 신입생을 제외한 2, 3, 4 학년 재학생을 중심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학과의 동의를 받아 학과 게시판에 이용해 홍보하였고, 학년마다 주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였다. 자기이해 및 타인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사로서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을 설명하고 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격려했다. G*Power 3.1 program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평균에 대한 차이검정에서 Kim (2004)의 연구 결과에서 얻은 효과크기 0.72, 유의수준 0.05, 검정력(1-β) 0.80으로 설정하고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의 수는 각 군당 32명으로 산출되었으나 중간 탈락자 10%를 고려하여 35명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35명은 실험군으로 하였고, 연구 참여에는 동의하였으나 프로그램에 참여

를 동의하지 않은 35명의 학생은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군의 최종 참가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3명과 자기 유형을 파악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총 30명이었으며, 실험군의 세 가지 그룹의 분포는 공격형(3, 7, 8 유형) 11명, 순응형(1, 2, 6 유형) 9명, 위축형(4, 5, 9 유형) 10명이었다. 대조군은 설문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33명이 참가하였다.

3. 연구 도구

1)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본 연구에 사용된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도구는 Youn (2001)이 개발한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Korean Enneagram Personality Type Indicator [KEPTI])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9가지 성격 유형별로 9문항 씩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유형을 개혁가, 2유형을 조력가, 3유형을 성취가, 4유형을 예술가, 5유형을 사색가, 6유형을 충성가, 7유형을 낙천가, 8유형을 지도자, 9유형을 중재자로 부른다. 그리고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방식에 따라 3, 7, 8 유형을 공격형, 1, 2, 6, 9유형을 순응형, 4, 5, 9유형을 위축형으로 분류한다. 이 검사의 Cronbach's alpha = .90, 재검사 신뢰도 .89로 유형별 문항의 양호도가 높은 검사이다.

2) 자아정체감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정체감 도구는 Park (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내용을 Kim (2004)이 수정·보완한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원저자로부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는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 시켜 나아가는 자아의 자질을 측정하는 48문항의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2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6가지 하위영역인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이었다.

3) 우울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도구는 Chon, Choi와 Yang (2001)이 타당도를 검토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원저자로부터 도구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는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인 우울감을 자기 보고의 방식으로 측정하는 총 20문항의 4점 척도이며, '극히 드물게' 0점에서 '거의 대부분' 3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60점으로 16점 이상은 임상치료가 필요한 우울로 판단

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8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H대학 병원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 대상자의 권리보장 및 설문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No. HYI-12-007)을 받고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프로그램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실험군에 있어 우울 점수가 16 이상으로 높은 대상자들은 주 연구자에 의해 개별상담을 시행하였으며, 대조군에서도 원하는 대상자에 한 해 본 연구가 끝난 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에니어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5.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는 2012년 3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사전 조사, 실험처치, 사후 조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실험군은 3월 21일에 대학원 세미나실에 모여 본 연구의 목적 및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아정체감과 우울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에니어그램 전문가에 의해 에니어그램 유형검사를 시행하였다. 2012년 5월 9일까지 프로그램을 실시한 직후 사후 조사를 사전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자아정체감과 우울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대한 에니어그램 영성학회, 한국에니어그램 연구소 및 한양대학교 대학원 에니어그램 교과과정에서 시행하는 기초과정과 선행 연구(Lee & Kim, 2004)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에니어그램 심화과정을 수료하고 10여 년간 에니어그램 워크숍을 진행해온 연구자와, 34시간 이상의 에니어그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에니어그램 검사 및 상담을 적용하고 있는 에니어그램 연구원 등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1박 2일의 에니어그램 집단상담 워크숍을 사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연구원들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졌으며, 강의 시연 및 모의 진행 후 피드백을 통해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게 도와주는 로드 맵 작성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완성하였다.

에니어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진행은 에니어그램의 이해와 탐구, 자기 인식, 자기 성장과 긍정적 변화, 역량강화 및 성장 전략의

전체 4가지 주제로 매주 1회, 8회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Table 1과 같다.

1) 에니어그램의 이해와 탐구

에니어그램의 이해와 탐구는 총 4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1회기 에니어그램의 이해에서는 에니어그램 워크숍 일정 및 에니어그램의 역사와 목적, 3가지 유형(공격형, 순응형, 위축형)과 관련해 1시간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2회기 에니어그램의 탐구에서는 간호 대학생 자신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1시간 동안 에니어그램 유형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 가지 유형별 그룹 토의를 2시간 진행하여 에니어그램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의 유형을 파악할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2)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의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자기 인식 I, II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3회기 자기 인식 I에서는 5시간 동안 9가지 유형별 특징과 3가지 그룹(공격형, 순응형, 위축형)별 토의를 통해 자신의 특성을 인식하고, 타인과 비슷한 점, 차이점을 이해하는 과정을 5시간 진행하였다.

4회기 자기인식 II에서는 각 유형별 날개와 각 유형의 분열과 통합에 대한 강의를 2시간 진행되었고, 3시간 동안 각 세 가지 그룹별 그룹토의와 자기표현 활동을 진행하여, 자기 유형의 날개, 분열과 통합방향에서의 자기 인식 및 사회적 방식에 따른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자기 인식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3) 자기성장 and 긍정적 변화

자기 성장과 변화를 위한 수련의 목적으로 총 16시간의 1박 2일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5회기에 해당하는 첫 날은 일정 소개 및 방배정을 하고 자기성장 and 변화의 시간으로, 4번, 6번 전문가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내적 기본 감정인 걱정과 대해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유형별로 모여 프로필을 작성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6회기에 해당하는 둘째 날은 각 유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 대상자가 강당에 모여 6시간 동안 성격의 고착이나 불균형을 이해하도록 유형별로 프로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발표자 및 발표 내용과 수위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부담스러울 경우 중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으며, 무엇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깨달아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Table 1. Contents of the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Sessions	Topics	Contents	Remarks
1	Understanding the enneagram (2 hours)	A preliminary test of self-identification and depression Introduction of the enneagram workshop and a lecture on the purpose and history of the enneagram The major themes for three separate groups	Survey Lecture from an enneagram expert
2	Investigation of the enneagram (2 hours)	Enneagram personality types test Group discussion - sharing the characteristics, and understand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urvey Enneagram researchers participate in each group, and present the contents of the discussion
3	Self-awareness I (5 hou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ine personality types Group discussion-sharing the characteristics, and understand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 lecture from an enneagram expert Enneagram researchers of the same personality types participate as a mentor in the group discussion
4	Self-awareness II (5 hours)	Each type's wing Each type's directions of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Each type's group discussion-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wings,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Lecture from an enneagram expert Enneagram researchers of the same personality types participate as a mentor in the group discussion
5	Self-development and positive changes I (The training in self-awareness & acceptance) (10 hours)	Introduction of the self-awareness and acceptance training schedule and assignment of rooms Listen to childhood trauma and passion of the type 4 and 6 mentors Discussion about the students' own childhood trauma and passion by each personality type Writing profiles	Lecture from an enneagram expert Group discussion by each group
6	Self-development and positive changes II (The training in self-awareness & acceptance) (6 hours)	Present the childhood trauma and passion by each personality type	Everyone participates
7	Competence enhancement (4 hours)	Review the direction signal cards Be aware of each student's own style of leadership through collage work, and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her (or him) and others	Everyone participates Present the students' collage work by each group
8	Strategies for development (4 hours)	Write the direction signals that lead the students to be the owner of their lives and resolve them Share the students' thoughts, feelings, and comments about the enneagram workshop The post- test for self-identity and depression Distribute the certificates of the enneagram program and take pictures	Present the students' own signal Survey Everyone participates

는 건강수준의 상태가 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4) 역량강화 및 성장전략

역량 강화 및 성장 전략은 총 8시간으로 7회기에는 향후 내면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 지시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정서적으로 건강한 수준으로 정체성이 형성되도록 지원하였다. 성격 유형별 콜라주 작업을 통해 유형별 리더십 스타일을 예측해보는 역량 강화 시간을 4시간 가졌으며, 8회기에는 7회기에서 선택한 방향 지시등을 카드로 작성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하루

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읽고 원하는 삶을 사는데 가이드가 되도록 하였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간호인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게 도와주는 로드맵 작성을 그룹별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상담에 참가한 소감을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후 자아 정체감 및 우울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에니어그램 참여에 대한 수료증과 기념촬영을 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선행 연구(Kim, 2008; Koo, 2011; Lee & Kim, 2004)의 프로그램은 평균 7-8회기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에 걸친 평균 총 14시간정도의 프

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박 2일 총 16시간의 워크숍을 포함한 보다 심도 있는 자아 성찰과 치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자기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련 시간을 추가하여 총 38시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 자아정체감, 우울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와 Fisher's exact test, t-test로 분석하였고, 가설 검정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평균의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추가분석으로 실험군에 있어 세 가지 그룹 별 사전 사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 30명, 대조군 33명으로 총 63명 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에 측정한 종속변수인 자아정체감과 우울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s 2, 3).

2. 자아정체감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아정체감 전체 점수는 9.08점 증가되었고, 대조군은 0.39점 감소되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1, p=.049$).

하위 영역별로는 미래 확신성($t=2.15, p=.035$)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주체성($t=1.44, p=.155$), 자기수용성($t=1.73, p=.086$), 목표 지향성($t=1.82, p=.073$), 주도성($t=1.62, p=.110$), 친밀성($t=0.71, p=.479$)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3. 우울

에니어그램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군의 우울 정도는 1.39점 감소하였고, 대조군의 우울 정도는 0.79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14, p=.257$) (Table 4).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63)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30)	Cont. (n=33)	χ^2	p
		n (%)	n (%)		
College year	Second	8 (26.6)	12 (36.4)	0.65	.722
	Third	15 (50.0)	14 (42.4)		
	Fourth	7 (23.4)	7 (21.2)		
Gender*	Male	4 (13.3)	2 (6.1)	1.14	.403
	Female	26 (86.7)	31 (93.9)		
Religion*	Protestant	4 (13.3)	10 (30.3)	5.63	.140
	Catholic	3 (10.0)	3 (9.1)		
	Buddhist	3 (10.0)	3 (9.1)		
	None	20 (66.7)	19 (51.5)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ied	3 (10.0)	4 (12.1)	3.01	.394
	Satisfied	19 (63.3)	17 (51.6)		
	Moderately	6 (20.0)	8 (24.2)		
	Dissatisfied	2 (6.7)	4 (12.1)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5 (16.6)	4 (12.1)	1.70	.427
	100-300	23 (76.7)	28 (84.8)		
	> 300	2 (6.7)	1 (3.1)		
Atmosphere in family	Good	23 (76.7)	22 (66.7)	0.38	.604
	Moderate	7 (23.3)	11 (33.3)		
Intimacy with parents*	Both	23 (76.7)	22 (66.7)	4.49	.322
	Father	1 (3.0)	2 (6.1)		
	Mother	5 (16.7)	9 (27.2)		
	Neither	1 (3.3)	0 (0.0)		

*Fisher's exact 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Dependent Variables (N=63)

Variables (number of items)	Exp. (n=30)	Cont. (n=33)	t	p
	M ± SD	M ± SD		
Self identity Total (48)	170.61 ± 21.38	177.97 ± 19.22	-1.48	.143
Independence (8)	29.90 ± 4.02	30.29 ± 4.20	-0.39	.694
Self-acceptance (8)	34.03 ± 3.93	34.29 ± 3.88	-0.28	.783
Future-certainty (8)	28.09 ± 6.11	29.00 ± 5.37	-0.67	.507
Goal-orientation (8)	25.97 ± 5.49	28.76 ± 6.34	-1.95	.055
Leadership (8)	25.34 ± 4.71	27.34 ± 4.79	-1.75	.084
Closeness (8)	26.93 ± 5.36	27.84 ± 5.83	-0.68	.502
Depression (20)	14.81 ± 7.05	13.82 ± 8.88	0.51	.615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4. 세 가지 그룹별 자아정체감의 변화

세가지 그룹 별 자아정체감의 변화정도는 공격형인 3, 7, 8유형 ($z=-2.09, p=.037$)과 순응형인 1, 2, 6 유형($z=-2.55, p=.011$)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위축형인 4, 5, 9 유형($z=-.77, p=.441$)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5. 세 가지 그룹별 우울의 변화

세가지 그룹 별 우울의 변화 정도는 공격형인 3, 7, 8 유형($z=-0.00$,

Table 4. Differences of Self-identity and Depression between the Groups

(N=63)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Mean difference	
		M ± SD	M ± SD	MD of post-pre	t	p	
Self identity	Total	Exp.	170.61 ± 21.38	179.69 ± 22.97	9.08	2.01	.049
		Cont.	177.97 ± 19.22	177.52 ± 22.47	-0.39		
	Independence	Exp.	29.90 ± 4.00	31.99 ± 8.54	2.09	1.44	.155
		Cont.	30.29 ± 4.20	30.08 ± 4.03	-0.21		
	Self-acceptance	Exp.	34.03 ± 3.93	35.45 ± 3.37	1.42	1.73	.086
		Cont.	34.29 ± 3.88	35.15 ± 4.61	0.14		
	Future-certainty	Exp.	28.09 ± 6.11	29.90 ± 5.56	1.82	2.15	.035
		Cont.	29.00 ± 5.37	28.24 ± 6.39	-0.76		
Goal-orientation	Exp.	25.97 ± 5.49	27.53 ± 5.30	1.56	1.82	.073	
	Cont.	28.76 ± 6.34	27.84 ± 5.82	-0.92			
Leadership	Exp.	25.34 ± 4.71	27.40 ± 5.28	2.06	1.62	.110	
	Cont.	27.34 ± 4.79	27.48 ± 5.43	0.14			
Closeness	Exp.	26.93 ± 5.36	27.87 ± 5.31	0.94	0.71	.479	
	Cont.	27.84 ± 5.83	28.02 ± 6.09	0.18			
Depression	Exp.	14.81 ± 7.05	13.42 ± 6.80	-1.39	-1.14	.257	
	Cont.	13.82 ± 8.88	14.61 ± 8.59	0.79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post-pre = Posttest - pretest; MD = Mean difference.

p=1.000), 순응형인 1, 2, 6 유형(z = -1.19, p = .233)과 위축형인 4, 5, 9 유형(z = -.46, p = .644)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Self-identity and Depression between Enneagram types in Experimental Group (N=30)

Variables	Categories	Pretest	Posttest	z*	p
		M ± SD	M ± SD		
Self-identity	Assertives (3,7,8 type, n = 11)	174.73 ± 20.43	185.82 ± 20.60	-2.09	.037
	Compliants (1,2,6 type, n = 9)	163.44 ± 17.40	176.78 ± 16.21	-2.55	.011
	Withdrawns (4,5,9 type, n = 10)	172.10 ± 26.61	174.40 ± 24.59	-0.77	.441
Depression	Assertives (3,7,8 type, n = 11)	12.00 ± 6.96	12.00 ± 5.93	-0.00	1.000
	Compliants (1,2,6 type, n = 9)	17.75 ± 5.04	17.78 ± 7.56	-1.19	.233
	Withdrawns (4,5,9 type, n = 10)	12.6 ± 5.58	10.30 ± 5.89	-0.46	.644

*Wilcoxon signed rank test.

논 의

본 연구는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8회기, 38시간에 걸쳐 집단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기성장과 변화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1박 2일, 16시간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의 이해, 어린 시절 부모와 관계에서 있었을 자신의 상처와 격정, 치유의 시간, 자신의 성찰을 돕는 프로필을 작성하고 발표하였다. 역량강화

와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방향지시등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과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로드맵 작성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개발과 자기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을 통해 자아정체감의 전체 평균이 중재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이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선행 연구(Kim, 2008; Kim, 2004; Youn, 2002)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아 정체감 하위 영역에서는 6가지 모두에서 자아정체감이 증가하였으나 미래 확신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에서 주체성, 자기수용성, 목표 지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정도를 측정하는 미래 확신성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에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사로서의 진로 지도 및 미래 비전의 세션을 추가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자신에 대해 갖고 있었던 학습된 내면의 자아가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을 통해 본질적 자아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Kim, 2007).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을 한 달 후 조사했을 때 자기 수용도가 높아졌다는 연구(Koo, 2011)에서 보여 지듯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주체가 되는 자기 내적 요인과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외적 성장을 위해서는 추후 관리를 통한 장기적인 지지가 필요하

다.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수련과정은 의식적 노력과 자발적 고난이 따르지만 점진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내재된 잠재력이 개발된다고 하였다(Lee & Kim, 2004). 따라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별적인 상담 적용을 위해 실험군을 세 가지 그룹별로 자아정체감의 변화에 대한 차이를 조사한 추가 분석 결과, 공격형(3, 7, 8 유형), 순응형(1, 2, 6 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위축형(4, 5, 9 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공격형(3, 7, 8 유형)이 자아 중심적이고,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뒤로 움츠러거나 보호를 요청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아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Riso & Hudson, 1999) 때문이며, 옹호자, 봉사자의 특성을 갖고 있는 순응형(1, 2, 6 유형)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초자아와 상의함으로써 어려운 상황과 스트레스에 반응하려 하는 특성(Woo, 1999)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격형은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이 자동적으로 자신과 관련되어서 일어난다는 특성(Riso & Hudson)에 따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였고, 순응형은 가족, 동료를 포함한 다른 의미 있는 타인과의 순응적인 관계 속에서 거부감 없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나타내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자아정체감 확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 가지 유형에서 유일하게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위축형(4, 5, 9 유형)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는 은둔적인 경향이 있음으로(Horney, 1945), 현재의 자신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음으로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특성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으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위해서는 위축형에 해당되는 4번, 5번, 9번 유형에 있어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두 번째 가설인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실험군에서 우울 정도가 1.30점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세 가지 그룹별 우울의 변화에 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이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선행 연구(Kim & Park, 2011; Ryu & Choi, 2007)와는 다른 결과이다.

우울의 원인을 종합해 볼 때, 우울이란 단일 모형이나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면을 포함하며,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부정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심리적 불안과 무력감을 은폐하고자 하는 심리적 갈등의 내면적 표출일 수 있다(Kim & Jung, 2001). 따라서, 다양한 원인과 역동에서 오는 정서 상태인 우울을 짧은 기

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으로 우울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던 선행 연구(Kim & Park, 2011; Ryu & Choi, 2007) 역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보호관찰 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가정 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들의 극단적인 심리 상황이 집단상담의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울과 같은 정서장애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그에 맞는 다양한 에니어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실험군에 있어 세 가지 그룹별 우울 점수를 살펴보면 순응형(1, 2, 6 유형) 그룹이 사전, 사후 모두 17점 이상으로 12점인 다른 두 그룹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한 CES-D에 따라 볼 때 임상적 치료가 필요한 우울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는 순응형이 자아정체감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결과와는 다르게 우울에서는 임상적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리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DSM-IV와 에니어그램의 상관관계 연구(Riso & Hudson, 1996)에서 보여 지듯이 초자아가 강하고 외부 평가에 민감하여, 우울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을 진행한 후 받은 소감문을 살펴보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되고, 취약한 점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이를 수용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대상자도 있었지만, 오히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힘들음 호소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따라서,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순응형인 1, 2, 6 유형의 경우에는 더 세심한 정서적 지지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재를 배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 개인이 훈련하기보다는 대학 교육환경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Park, 2012). 따라서,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을 하나의 대안으로 간호 대학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정체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간호 대학생의 정신 건강 및 졸업 후 자기수용을 하는 통합적인 간호사로서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8회기, 총 38시간의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을 진행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중 미래 확신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세 가지 그룹별로 자

아정체감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별, 그룹별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은 학업과 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개인 및 직업적 정체감 혼란을 겪고 있는 간호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이에 현재 전문 의료인에게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을 간호중재로 활용하여, 간호 대학생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아정체감 확립을 갖춘 간호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효과적인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을 위해서는 에니어그램 유형분석을 통해 분류된 세 가지 그룹에 따라 차별화된 에니어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응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추후 모임을 운영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내·외적인 환경의 스트레스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의 역동 수준을 정확하게 사정하여 건강-불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강화와 자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Chon, K. K., Choi, S. C., & Yang, B. C.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Horney, K. (1945). *Our inner conflicts: A constructive theory of neurosis*.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Inc.
- Kim, E. A., & Park, H. K. (2011). The effects of enneagram group counseling for probation adolescents on their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8(2), 231-267.
- Kim, G. H., & Kim, H. J. (2006). The effect of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on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4), 500-507.
- Kim, H. J. (2008). The effects of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s on college students' self-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1(2), 17-30.
- Kim, S. I., & Jung, Y. C.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depression tendency and their home environment. *Studies and Korean Youth*, 12(1), 5-27.
- Kim, S. N. (2004). *The effectiveness of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self-identification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Y. W. (2007). *Enneagram*. Seoul: Olive Tree.
- Koo, H. Y. (2011). Effects of the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steem,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446-455.
- Lee, H. J., & Kim, M. H. (2007). A path model for self-identity and hopelessness to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3), 243-264.
- Lee, J. S., & Kim, Y. W. (2004). The enneagram program effect for stress manage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4), 438-448.
- Lee, M. R. (2007). The relationship among enneagram personality types, depression and anxie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4(1), 99-112.
- Lee, M. R., & Kim, S. G. (2005). A study on enneagram personality types of nursing stud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8(2), 168-181.
- Park, A. C. (1996).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s of ego-identity scal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3), 67-83.
- Park, E. M. (2012).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7), 497-509.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7.497>
- Park, H. J., & Jang, I. S. (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14-23.
- Park, H. S. (2007).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for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2), 103-112.
- Riso, D. R., & Hudson, R. (1996). *Personality types using the enneagram for self-discovery*.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Riso, D. R., & Hudson, R. (1999). *The wisdom of the enneagram: The complete guide to psychological and spiritual growth for the nine personality types* (11th ed.). New York, NY: Bantam.
- Ryu, J. J., & Choi, M. J. (2007). A case study on art therapy using enneagram for hypochondria symptoms for women casualtie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4(2), 29-68.
- Timmins, F., Corroon, A. M., Byrne, G., & Mooney, B. (2011). The challenge of contemporary nurse education programmes. Perceived stressors of nursing students: mental health and related lifestyle issue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9), 758-766. <http://dx.doi.org/10.1111/j.1365-2850.2011.01780.x>
- Woo, J. H. (1999). *Enneagram personality test*. Daegu: Chungam Suwon.
- Wright, S., & Sayre-Adams, J. (2007). Who do you think you are? *Nursing Standard*, 21(32), 20-23.
- Yang, S. E.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Yang, S. H.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in junior college in some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3), 376-390.
- Youn, Y. S. (2001). The enneagram personality type scale: I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5(3), 131-161.
- Youn, Y. S. (2002). The effect of enneagram training program related to self-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2), 93-111.